

# 융합적 가족 기능과 청소년 보호요인의 매개검증에 관한 연구

장춘옥<sup>1\*</sup>

<sup>1</sup>늘봄서비스상담센터

## A Study on Convergence Family Function and parameter validation fusion of youth protection factor

Chun-Ok Jang<sup>1\*</sup>

<sup>1</sup>Neulbom Services Counseling Center

**요약** 한국청소년패널(2008)의 중2 패널 5차년도 자료를 가지고 기술통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상황에서 위험요인, 보호요인, 심리적응 간의 관계와 보호요인의 매개효과의 기제를 검증하고, 심리적응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보호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대상자의 빈도분석과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을 이용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의 작용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청소년의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 과정이나 보호요인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개입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청소년의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 과정이나 보호요인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다. 또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방향을 마련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 **Key Words** : 기능적 결손, 위험요인, 보호요인, 매개변수, 결손가족

**Abstract** Korea Youth Panel (2008) has 2 panels of the 5th year of Knowledge data to perform statistical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isk factors in the risk conditions of the family of functional deficits, protective fa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protective factors verification mechanisms and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level it is an objective to analyze the protective factors that protect the high youth.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y frequency analysi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analyte's was performed t test using PASW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 An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arameters is performed rank regression analysis for verification of the effects of protection factors for adaptation.

Rather than focusing on youth risk factors in social welfare practice field, focusing on processes and protective factors to reduce the risk factors, it is possible to convert the viewpoint overlooking the youth exposed to risk factors. Also, for young people experiencing difficulties that features loss of the family, it is determined that the prepared foundation which can be provided in the direction of social welfare practical intervention.

• **Key Words** : Functional Deficiency;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Parameter; Broken Family

\*교신저자 : 장춘옥(jangddogas@hanmail.net)

## 1. 서론

가족의 기본 역할 및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이는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과거의 청소년에 비해 물질적·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의 물질적 혜택은 건강 문제, 약물 남용, 우울, 자살 등 위협적인 환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신체적·인지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자신의 정체성 발견과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심리·사회적 자립 초기로서 가족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환경의 여러 위험요인에 직접 노출되는 시기이다. 가족의 기능적 결손은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 친구와의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자아존중감, 인지능력, 도덕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6].

가족결손과 청소년의 심리적응 간 관계의 연구를 보면 구조적 결손변인은 비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우울·불안에 대해서만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부모불화는 비행과 우울·불안에 대해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가족 요인 중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3] 가족 응집력이 낮아지거나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울·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2]. 가정환경의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의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과 불화, 부모의 품행문제 등이 우울·불안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보호요인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가족 구성원과 적응유연성과의 관계에서 관계는 적응유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매개기능을 통해서 간접적인 관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심리적 기능에 대한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효과가 있으며 [1], 스트레스에 의한 사건에 덜 취약하고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또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관련이 있다.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는 적응유연한 개인을 구별하거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따로 측정하였다.

적응유연성의 측정 영역을 살펴보면 적응유연성을 다

차원적인 방법으로 접근 할 것인가, 총체적 방법으로 접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고위험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중 외적으로는 적응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우울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11].

이는 각 발달 영역에 따라 적응유연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영역특수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18]. 적응유연성이 영역 간에 균일하지 않은 것 자체가 흔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발달 양상으로 보았다 [8].

청소년의 발달 과정의 관점에서 적응유연성은 학업성취가 높고 또래와 잘 어울리며 학교활동에서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적응유연적인 청소년은 특정한 스트레스를 수용하거나 참고, 피하고,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취하기도 한다 [12]. 따라서 기능적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은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발달과 관계 깊은 심리, 학교영역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먼저 기능적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응의 수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무엇을 적응으로 볼 것인가? 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적응유연성 연구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고위험 상황은 전제가 중요하며, 기능적 결손을 고위험 상황으로 규정하려면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부모의 불화나 부모감독 부재는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며, 강압적 자녀양육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4]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가족의 기능적 결손은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족의 기능적 결손을 고위험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적응유연성은 고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은 청소년의 평균적 기능 수준을 유지할 때 적응 유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리영역 부분은 가정환경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심리적응을 유지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안정을 이루며, 침착하게 대처해 나가는 개인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이룬 청소년은 가족의 결손을 경험하더라도 탄력 있게 적응해 나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청소년

년은 많은 심리 문제를 경험하게 될 비율이 높다 [5].

가족의 결손은 갈등적인 가족 환경에서 벗어나 더 조화로운 환경으로 전환시켜 행동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적게 가지며 능력 있는 개인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다 [6].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은 다양한 대인관계와 과제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하며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미리 상황을 그려보는 능력을 지녔으며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 10].

그러나 이러한 측정 방식은 인물중심적 접근의 한계인 고위험 기준이나 고적응 기준을 임의 적용하는 한계와 변인중심 접근의 한계인 적응유연한 청소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변인중심 접근과 인물중심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 [16].

이와 같은 논의에 기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상황을 전제로 심리적응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추출한 뒤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의 기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에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는 동일 표본을 두 번 이상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자료로 조사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의 작용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종속변인

청소년의 심리적응(psychological adjustment)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학교, 가정, 친구사이에 별문제 없이 잘 적응해 살아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였으며, 역경을 겪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을 “적응유연성”이라고 정의하였다 [16].

이런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잘 적응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Table 1>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우울과 불안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개념상 이해의 편의를 위해 문항을 역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게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2,967명 대상으로 심리적응 평균점수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점수 3.83점을 고적응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836$ 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 2.2.2 독립변인: 기능적 결손(위험요인)

가족 형태는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부모의 불화, 갈등, 방임 및 가족의 부도덕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되고 가족원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보장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을 기능적 결손가족이라 할 수 있다 [17].

따라서 부모 양육태도를 묻는 6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의 편의를 위해 긍정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능적 결손가족이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911$ 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 2.3 매개변인

### 2.3.1 개인적 보호요인

자이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등을 묻는 긍정적 문항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실패감을 묻는 부

정적 자아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나는 나 자신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763$ 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 2.3.2 사회적 보호요인

사회적 보호요인을 묻는 학교관련 문항은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등으로 각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수화 하여 평균의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와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558$ 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 2.4 통제변인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빈곤여부, 가족의 구조적 결손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 '1', 여학생 '0' 값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빈곤은 중위소득 60%를 기준선으로 설정하여,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는 '1', 중위소득 60%이상 가구는 '0'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결손가구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구는 '1'로 구분하였다. 그 외 친아버지만 계시는 경우, 친어머니만 계시는 경우, 친아버지와 계모가 계시는 경우, 친어머니와 계부가 계시는 경우, 계부와 계모가

계시는 경우, 계부만 계시는 경우, 계모만 계시는 경우, 두 분 모두 안 계시는 경우는 '0'의 값을 주었다.

## 3. 분석결과

### 3.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1>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전체 분석대상자의 수는 2,967명이며 이들 중 남학생이 50.8%를 차지하는 1,510명, 여학생이 49.2%를 차지하는 1,457명으로 여학생과 남학생 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로 구성된 가족은 2,706 가구로 전체의 91.2%에 해당하였으며 친아버지가 아니거나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와 또는 두 분 다 없는 경우가 243 가구로 8.1%에 해당하였다.

가족기능이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안에 보호요인의 매개검증 1단계는 기능적 결손가족이 심리적응에 ( $\beta = -.197, p < .001$ )로 음(-)의 영향을 주었다.

매개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beta = -.073(p < .001)$ 로 감소되어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교친구애착의 매개검증 1단계에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리적응에 음(-)의 영향을 주었으며, 2단계 검증에서도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학교친구애착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beta = -.197(p < .001)$ 에서  $\beta = -.147(p < .001)$ 로 감소되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높을수록, 학교친구에 대해 애착이 높을수록 기능적 결손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alyzed

Division	collection (Number of people)	(%)	
sexuality	men	1,510	50.8
	woman	1,457	49.2
Family structure	father+ mother	2,706	91.2
	etc. (if not the father+mother)	243	8.1
	no answer	18	0.6
Poverty Status	Poverty	583	19.5
	Non poverty	2,212	74.6
	no answer	172	5.8
Total	2,967	100.	

<Table 2> Mediating Effects of Self Esteem

Variables	Model 1 (Dependent: Psychological adaptation)		Model 2 (Dependent: Self Esteem)		Model 3 (Dependent: Psychological adaptation)	
	sexuality(women=0)	.154***	8.172	.055**	2.957	.132***
Poverty Status (Non poverty=0)	.012	.643	-.035	-1.880	.027	1.548
Status the structural defect (Non poverty=0)	-.040*	-2.102	.000	-.002	-.040	2.303
Functional deficits	-.197***	-10.349	-.295***	-15.832	-.073***	-4.057
Self Esteem					.417***	23.545
R2 (Modified R2)	.053(.052)		.087(.086)		.212(.210)	
F	38.601***		65.892***		147.964***	
R2 increase	.037(F=107.109, p=.000)		.083(F=250.667, p=.000)		.159(F=554.381, p=.000)	

\*p<.05, \*\*p<.01, \*\*\*p<.0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chool attachment friend

Variables	Model 1 (Dependent: Psychological adaptation)		Model 2 (School friends Attachment)		Model 3 (Dependent: Psychological adaptation)	
	sexuality(women=0)	.154***	8.172	.082***	4.223	.116***
Poverty Status (Non poverty=0)	.012	.643	-.001	-.035	.012	.701
Status the structural defect (Non poverty=0)	-.040*	-2.102	.005	.285	-.039*	2.254
Functional deficits	-.197***	-10.349	-.122***	-6.271	-.147***	-8.377
Self Esteem					.410***	23.916
R2 (Modified R2)	.053(.052)		.018(.016)		.218(.216)	
F	38.601***		12.310***		150.427***	
R2 increase	.037(F=107.109, p=.000)		.014(F=39.327, p=.000)		.165(F=571.952, p=.000)	

\* p<.05 \*\* p<.01 \*\*\* p<.001, 분석대상(N)=2,967명

#### 4.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적응유연성 관점에서 위험 상황에서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을 확인하고 예측변인과 발달 산물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위험요인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접근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과 부모감독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방향을 마련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으로 인한 청소년

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적응유연함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개입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기능적 결손을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관계를 증진 시키고 소통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학교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교사들의 인식도 변화되어야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 관점에서 설정된 여러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적응을 다양한 방면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된다면 변인간의 이론적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Kwon, "Resilience in lesbian, gay, and bisexual individuals." *J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7, pp. 371-383, 2013.
- [2] G. W. Brown, and T. O. Harris, (eds).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study of psychiatric disorder in women." London: Tavistock, 1978.
- [3] J. A. Graber, *Internalizing Problems During Adolescence*. In R.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2004.
- [4] T. J. Dishion & J. M. Tipsord. "Peer contagion i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2 pp 189-214, 2011.
- [5] P. Kwon, & D. S. Hugelshofer, "The protective role of hope for lesbian, gay, and bisexual individuals facing a hostile workplace climate." *Journal of Gay and Lesbian Mental Health*, Vol. 14, pp. 3-18, 2010.
- [6]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Mahwah, NJ: Lawrence Erlbaum. 1999.
- [7] P. Kwon & D. S. Hugelshofer, "Lesbian, gay, and bisexual speaker panels lead to attitude change among heterosexu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Vol. 24, pp. 62-79, 2012.
- [8] S. S. Luthar., D. Cicchetti & B. Becker.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pp. 543-56, 2000.
- [9] E. E. Werner, "High 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9, pp. 72-81, 1989.
- [10] M. Rutter.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7, pp. 316-331, 1987.
- [11] L. J. Anoshian. "Social isolation and rejection of homeless children." *Journal of Children and Poverty*, Vol. 9, No. 2, pp. 115-134, 2003.
- [12] R.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Co Inc; 1972.
- [13] Sek Won Gong. "Approach of defects by type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family policy." KIHASA OPEN DIGITAL REPOSITORY. 1995.
- [14] Soon Kyu Kim. "School resilience of poor youth development model: the addition of protective factors, mediating, moderating effect around the model." Doctoral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6.
- [15] Sung Ok Pak, Kui Soon Shin, Jung Ok Park. "Self-esteem and Stress in a Child of Deficiency Family."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 12 No. 4, pp. 403-416, 2003.
- [16] Hyun Sook Shin. "Adolescent resilience to family adversity: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Vol. 11 No. 2, pp. 71-84, 2003.
- [17] Mii Sook Cho. "Children present an extension of domestic violence and behavioral problems of school violence: their solutions and countermeasures." *Through Lookingglass DukYoung* 2005.
- [18] Hyun Sook Jwa, "A study on longitudinal interaction of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poverty: psychological resilience, social resilience, school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1 No. 2, pp. 247-278, 2010.

## 저자소개

장 춘 옥(Chun-Ok Jang)

[정회원]



- 2010년 2월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2월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늘봄사회서비스상담센터 대표

<관심분야> : 가족 기능, 적응유연성, 청소년